

통신언어에 나타난 역문법화 현상 고찰*

- 접두사 ‘개-’의 용법을 중심으로 -**

강희숙***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원리
3. 통신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4. 접두사 ‘개-’의 역문법화
5. 마무리

【국문초록】

본 연구는 통신언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 온 문법적 기능 바꾸기 현상 가운데는 단순히 품사의 전성 또는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문법화나 역문법화 현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최근의 통신언어에서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는 접두사 ‘개-’의 역문법화 현상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역문법화(degrammaticalization) 현상이란 여러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문법화(grammaticalization)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영어를 비롯한 다른 몇몇 언어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어의 일상어에서도 종종 발견되어 온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언어학에서의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원리와 함께 오늘날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기능 바꾸기를 문법화 현상과 역문법화 현상으로

* 이 논문은 2010년도 조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본고는 2011년 12월 15일~17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38회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구분하여 그 유형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접두사 ‘개-’의 역문법화 현상을 관찰·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주제어: 통신언어, 문법적 기능 바꾸기, 접두사 ‘개-’, 정도 부사, 문법화, 역문법화

1. 들어가는 말

통신언어란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전자메일, 휴대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전자 매체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상어와는 거리가 있는 통신언어 특유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통신언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일상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문법적 기능을 바꾸는 현상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접두사 ‘개-’의 문법적 기능 바꾸기 현상을 이른바 역문법화(degrammaticalization)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들어 ‘개-’는 기존의 문법적 기능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 ㄱ. 와! **개** 예쁘다! 저 간호사한테 주사2000대라도 맞을 수 있겠어.
 나. 내가 저 개라면.. **개** 부럽다.
 다. 한 번 더 말하는데 남산타워 물가 **개** 비싸다.

위의 예들은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in》에서 사용된 ‘개-’의 용례들이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이러한 예들에서 ‘개-’는 명사를 어기로 하여 접두사로서 쓰였던 본래의 문법적

기능에서 벗어나 ‘정말, 매우’ 등의 의미를 지니는 정도 부사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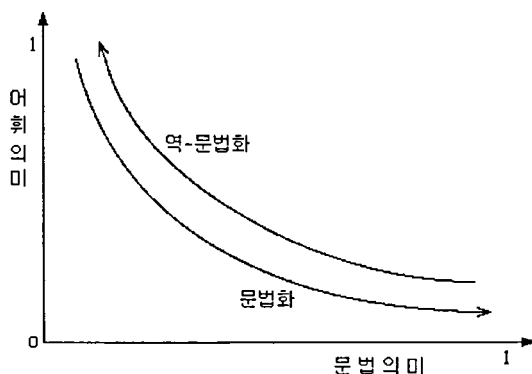
접두사 ‘개-’가 보여주는 문법적 기능 바꾸기 현상은 단순히 다른 품사에 속하였던 단어가 일정한 형태 변화 없이 그 품사가 바뀌게 된 것에 해당하는 품사의 전성 혹은 전환 현상(Leech, 1981:215)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사의 전성 또는 전환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성은 언어 변화의 원리와 관련시켜 볼 때, 보편적인 성격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와는 거리가 있는 일종의 역문법화(degrammaticalization)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어학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단순히 문법적 기능 바꾸기로만 보았던 현상을 문법화 또는 역문법화와 같은 언어 변화의 원리로써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두 가지 언어 변화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을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접두사 ‘개-’가 경험하고 있는 역문법화 현상을 관찰·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고자 한다.

2.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원리

주지하는 대로 최소의 문법 단위에 해당하는 형태소의 의미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로 구분된다. 어휘적 의미를 지닌 것은 주로 자립적으로 쓰이는 어휘소(lexical word)이며,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주로 의존적으로 쓰이는 문법소(function word)들이다. 문제는 어떤 형태소가 어휘적 의미를 지녔는지, 아니면 문법적 의미를 지녔는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휘 의미가 1이고 문법 의미가 0에 가까운 것은 주범주(major category)로서 명사, 동사 등과 같은 자립적 어휘들이 이에 해당하며, 어휘 의미는 0에 가깝고 문법

의미가 1로 커진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은 소범주(minor category)로서 어미나 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개별 형태소가 지니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의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비롯된 언어 변화의 원리가 바로 문법화 현상과 역문법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언어 변화의 원리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주호(2001:96)이다.



[그림 1] 문법화와 역문법화

위 그림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문법화란 결국 어휘적 의미를 지니던 요소가 문법적 의미를 지니던 요소로 전화되는 것을 포함하여, 문법적 의미가 덜한 것이 문법적 의미가 좀 더 강한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찍이 J.Kuryłowicz(1965)에서는 문법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던 것이다.

- (2)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문법화에 대한 이와 같은 J.Kuryłowicz의 정의는 현대 문법화 이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문법화 이론은 결국 계속적으로 문법을 향해 가고 있는 어휘들의 행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¹⁾

문제는 (2)와 같은 정의만으로는 문법화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Bybee *et al.*(1991)에서 논의된 단일방향성 가설(unidirectionality hypothesis)을 토대로 한 문법화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 a. 의미: 구체적>추상적
- b. 음운: 자립적>의존적
- c. 범주: 어휘적>문법적

이와 같은 문법화의 진행 방향은 범언어적으로 계속하여 반복되어 나오는 변화 유형을 관찰하고 일반화한 것으로서, 문법화가 결국 의미면에서는 구체성을 지니는 것에서 추상성을 지니는 것으로, 음운의 측면에서는 자립적 요소가 의존적 요소로, 범주적 측면에서는 어휘적 요소가 문법적 요소로 일정한 연쇄적 경로를 밟아 나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법화의 연쇄적 경로란 문법화가 하나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로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Hopper & Traugott(1993:7)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쇄적 경로는 다음과 같다.

- (4) 내용어(content word) > 문법어(grammatical word)
- > 접어(clitic) > 굴절 접사(inflexional affix)

1)이성하(1998:24) 참조.

이와 같은 범주 가운데 내용어란 그 자체가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범주를 말하는데, 형태적 복잡성이나 통사적 특징을 토대로 이를 다시 주범주(major category)와 중간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명사와 동사는 주범주에, 형용사와 부사는 중간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하면, 전치사나 접속사, 접사, 관사, 조동사 등은 중간 범주 다음의 소범주(minor category)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바, (4)의 경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 (5) 주범주(명사, 동사) > 중간 범주(형용사, 부사) > 소범주(전치사, 접사, 접속사, 관사, 조동사) > 접어 > 굴절 접사

문제는 Bybee *et al.*(1991)의 단일방향성 가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5)와 같은 문법화가 역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Hopper & Traugott(1993:126)에서는 단일방향성 가설이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6) a. to up the ante
b. That was a downer.

위의 예들은 원래 전치사에 속하던 영어의 ‘up’이 동사로 쓰이거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던 ‘down’이 명사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5)에서와 같은 문법화의 연쇄 경로와는 반대 방향에서 이루어진 역문법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²⁾

언어 보편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문법화와는 달리 역문법화는

2) 김혜리(1998:152) 참조.

그 예가 비교적 드문 특수한 현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영어나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우리말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사례에서 역문법화 현상에 대한 보고가 적지 않다.

우선, 영어에서 나타나는 역문법화 현상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김혜리 (1998)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역문법화의 사례를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7) ㄱ. 문법어>내용어(후치사>명사): behind
- ㄴ. 굴절접사>문법어: -s>his(소유격)
- ㄷ. 파생접사>내용어: -ism>ism, -ist>ist, -ology>ology,
 anti->anti

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영어에서 나타난 역문법화의 사례로는 세 가지 유형이 보고되었는데, 우선 (7ㄱ)의 ‘behind’는 본래 장소를 나타내는 후치사였던 것이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는 명사로 쓰임으로써 역문법화된 것이다. 이어서 (7ㄴ)의 ‘-s>his’는 소유자인 명사의 형태에 속격의 굴절 접사 ‘-s’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쓰였던 소유격이 ‘his-속격’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³⁾ 이는 결국 문법성의 정도가 높은 굴절 접사 ‘-s’가 그보다 문법성이 낮은 문법어 ‘his’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역문법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ㄷ)은 ‘-ism, -ist, -ology’ 등의 접미사와 ‘anti-’ 같은 접두사가 소범주에 속하는 접사가 아닌 주범주의 명사로 쓰이게 되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이 또한 역문법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3)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하자면, ‘the king’s hunter’의 방식으로 쓰였던 소유격이 ‘Augustus his daughter’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초기 현대영어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혜리 1998:154 참조).

역문법화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실증적인 증거로는 일본어의 ‘-ga’를 들 수 있다. Mastumoto(1988:365)에 따르면, 일본어의 ‘-ga’는 원래 선행 서술어에 결합하여 의존적인 연결어미로 사용되다가 18세기 이후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독자적인 접속사로 쓰이게 되었다. 다음은 그 예이다.⁴⁾

- (8) ㄱ. Taro-wa wakai-ga, yoku yaru(-yo).
 ㄴ. Taro-wa wakai-yo. Ga, yoku yar-u(-yo).
 (타로는 어리다. 그러나 일을 잘한다.)

위의 예 가운데 (8ㄱ)은 ‘-ga’가 굴절 접사에 속하는 연결어미로, (8ㄴ)은 ‘-ga’가 소범주에 속하는 접속사로 쓰인 것을 각각 보여준다. 일본어의 역사적 발달 단계에서 ‘-ga’는 18세기 이전까지는 의존적 성격의 연결어미로 쓰이다가 그 이후로는 접속사로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역시 문법성이 강한 굴절접사가 그보다는 문법성의 정도가 덜한 소범주의 접속사로 변화한 역문법화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다.⁵⁾

한편, 우리말에서의 역문법화 현상을 다룬 연구 성과로는 안주호(2001, 2002), 김유범(2006), 최윤지(2008) 등이 있다.

안주호(2001, 2002)는 우리말에 나타난 역문법화 현상에 대한 첫 번째 연구 성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논문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4) 안주호(2002:26)에서 재인용.

5) Mastumoto(1988)에서는 ‘-ga’ 이외에도 ‘ke(re)do(mo)’[‘그러나’], tokorode(‘그런데’), tokoroga(‘그러나’), to(‘그러면’), dakedo(mo)[‘그러나’] 등 또한 이러한 변화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9) ㄱ. 조사>부사: 보다

ㄴ. 의존명사>자립명사: 때문에, 나름대로, 땀은, 뿐만 아니라

ㄷ. 접미사>2인칭 대명사: 님

ㄹ. 접미사>부사: 짱

이러한 예들은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옛말 말뭉치와 연세대학교에서 구축한 구어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으로, (9-ㄱ)의 ‘보다’는 원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다가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굴절접사에 속하는 조사가 중간 범주에 속하는 부사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역문법화의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ㄴ)의 ‘때문에, 나름대로, 땀은, 뿐만 아니라’ 등 역시 원래 선행절이나 명사 또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 쓰던 의존적 형태들이었으나, 그와 같은 선행요소의 수식 없이 자립적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문법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 확인된 용례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ㄱ. 도로뿐 아니라 댐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은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본 책무 중 하나다. **때문에** 돈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ㄴ. 출전 선수들과 가깝게 상대하여 그들의 뒷바라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 했다.

ㄷ. **땀은** 신중하게 생각하느라고 그랬네.

ㄹ.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를 이끌어 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위의 예들에서 보듯이, ‘때문에, 나름대로, 만은, 뿐만 아니라’ 등은 모두 선행요소의 수식이 없이도 자립적인 형식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존 명사들 또한 조사 ‘보다’와 마찬가지로 역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

(9ㄷ)과 (9ㄹ)은 접미사로 쓰이던 ‘-님’과 ‘-장’이 각각 2인칭대명사와 부사로 쓰임으로써 역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 가운데 ‘짱’은 접미사 ‘-장’이 아닌 명사 ‘장(長)’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면, 역문법화가 아니라 오히려 문법화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⁷⁾

한편, 김유범(2006)은 현대국어 형용사 ‘지다’⁸⁾의 역문법화 현상에 대해 다룬 것으로, ‘지다’가 소망의 형태소 ‘ㄷ’과 계사 어간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지’라는 형태가 선어말어미로 발달한 다음, 이것이 19세기 이전에 형용사 어간으로 역문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윤지(2008)에서는 파생접미사의 지위를 갖고 있던 ‘기(氣), 군(軍), 설(設), 장(長), 증(證)’ 등의 한자어들을 자립명사로 발달하고 있는 ‘꾼’류 한자어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발달이 문법화의 단일방향성에 반대되는 역문법화의 사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예이다.

6) 김유범(2006:124, 각주 1)에서는 ‘때문에, 나름대로, 만은, 뿐만 아니라’의 경우는 ‘때문, 나름, 만, 뿐’이 단독으로 자립성을 가졌다기보다는 특정한 조사들과 결합된 표현이 관용성을 띄게 된 것으로 보아, 이들을 분명한 역문법화의 예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특정 조사들과 결합되어 관용적으로 쓰이더라도, 선행 수식 성분의 도움 없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자립성을 획득하고 있는 역문법화의 예로 볼 수 있다고 본다.

7) 김유범(2006:124, 각주 1)에서는 ‘짱’ 역시 명사 ‘장군(將軍)’에서 왔다는 견해에 비추어 역문법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짱’이 ‘장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8)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를 빌리자면, ‘지다’는 “내 고향에 가고 지고”의 예에서처럼 앞말이 나타내는 동작을 소망함을 이르는 말이다.

- (11) ㄱ. 그 애는 **끼**가 많아서 무대에 나가서도 떨지 않고 노래를 잘 부른다.
 ㄴ. 현장을 지키는 소수의 **꾼**들이 시위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ㄷ. 회 하나 시켜놓고 장장 네 시간 동안 **썰**을 풀더라.
 ㄹ. 우리 학교에서는 철수가 **짱**이야.
 ㅁ. 요즘 시대엔 **쫄** 없으면 취직이 안 됩니다.

만일 위의 예들이 모두 ‘접미사>명사’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본다면, 이들은 모두 역문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대로 (11ㄹ)의 ‘**짱**’만큼은 ‘접미사>명사’의 변화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명사 ‘장(長)’의 기능 확대로 본다면 역문법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하여 확인한 대로, 언어변화의 원리 가운데는 문법화처럼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문법화와 반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역문법화 현상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역문법화의 경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는 (5)에서 제시한 문법화의 경로를 반대로 밟아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역문법화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12) 굴절 접사 > 접어 > 소범주(접사, 접속사, 관사, 조동사) > 중간 범주 (형용사, 부사) > 주범주(명사, 동사)

(5)와 (12)에서 제시한 문법화 및 역문법화의 경로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통신언어의 문법 범주 바꾸기 현상 가운데는 단순한 품사 전환이 아닌 문법화 및 역문법화의 원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용례들을 상당수 가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통신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인터넷 통신 시대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실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에서는 통신언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기존 형태들의 기능을 바꾸어 쓰는 현상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기능 바꾸어 쓰기 유형으로는 ‘문법 형태의 기능 바꾸어 쓰기’와 ‘어휘 의미의 기능 바꾸어 쓰기’ 현상⁹⁾ 두 가지가 있다. 이러한 유형 가운데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문법 형태의 기능 바꾸어 쓰기’ 현상인데, 그 하위 유형으로는 명사의 기능 바꾸기와 접사의 기능 바꾸기가 있다.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에서 관찰한 명사의 기능 바꾸기 현상의 예로는 ‘완전, 대략, 장(長, 쟁)’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용례 가운데 일부를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3) ㄱ. **완전** 짜증 (서울/특목/남/홈피)

오늘은 **완전** 여름이다ㅌㅌㅌ (대구/인문/여/모둠)

ㄴ. 나능 기말 **완존** 망쳤따. (대구/인문/여/모둠)

수능 끝났다고 **완전** 막가네. (대구/인문/남/모둠)

- (14) ㅎㅎ 어제 모의고사 **대략** 낭패 + 충격(서울/실업/여/대화)

오늘 모의고사; 솔직히 **대략** 어이가 없다 ㅍㅍ (대구/인문/여/문자)

- (15) ㄱ. 우아/**짱**이다+-+//ㄱ난내일할래//z ((서울/특목/여/문자)

ㄴ. 쿠파돌리구잇어? 오늘**짱**출따ㅍ (서울/실업/여/문자)

위의 용례들 가운데 (13)은 명사 ‘완전’의 기능 바꾸기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13ㄱ)은 ‘완전’의 본래적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그 기능이 바뀐 예

9) ‘잠수 풀다, 대박 나다, 개그 친다’와 같은 연어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바뀌는 현상이 그 예에 속한다.

이고, (13ㄴ)은 ‘완전’이 명사가 아닌 부사로 사용됨으로써 그 기능이 바뀐 예이다.

‘완전’의 경우, 원래 서술성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이거나,¹⁰⁾ ‘일을 완전히 끝내다’와 같이 접미사 ‘-히’가 붙어 부사어로 쓰이는 말이었다. 그러나 (13ㄱ)에서는 ‘완전’이 비서술성 명사를 수식함으로써 그 기능이 확장되었으며, (13ㄴ)에서는 ‘완전’이 부사 ‘완전히’가 쓰여야 할 자리에서 ‘완전’ 자체로 부사로 쓰임으로써 기능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14)는 원래 ‘대강의 줄거리’를 뜻하는 명사 ‘대략’이 ‘대체로, 대체적으로’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 쓰임으로써 기능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15)는 ‘어떤 조직체나 부서 단위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지닌 명사 ‘장(長)’을 경음화한 형태 ‘짱’이 (15ㄱ)에서는 ‘짱+이다’의 구성에서 쓰여 ‘최고’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로 쓰임으로써 그 기능이 확대된 예라고 한다면, (15ㄴ)에서는 ‘최고, 가장, 매우’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됨으로써 기능이 바뀐 사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명사의 기능 바꾸기 예들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즉, (13ㄱ)과 (15ㄱ)은 단순히 통사·의미적 차원의 문법적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13ㄴ)을 비롯하여, (14), (15ㄴ)은 ‘명사>부사’의 변화, 곧 문법 범주가 바뀌되, 주범주에 속하는 명사가 중간 범주에 속하는 부사로 바뀜으로써 (5)에서 제시한 문법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에서 단순히 문법적 기능 바꾸기 현상으로 제시된 명사의 용법 가운데는 보편적 언어 변화의 성격을 지니는 문법화에 속하는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10) ‘금융 시장의 완전 개방’이나 ‘노사 분류 완전 타결’ 등이 그 구체적인 용례이다.

그런데 (15ㄴ)의 ‘짱’은 명사에서 부사로 문법화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16) ㄱ. 개가 우리 동아리 **짱**이잖아.

ㄴ. 얼**짱**/몸**짱**/노래**짱**/디카**짱**/

ㄷ. 좋아요, 좋아요, **짱** 좋아요.

욕을 쓰면 진짜 완전 울트라캡송 **짱** 나빠요.

위의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짱’의 용법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16ㄱ)은 명사 ‘장(長)’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6ㄱ)의 ‘짱’은 ‘장’과 달리 음성적 차원에서 경음화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조직체나 부서 단위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는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16ㄴ)은 명사 ‘짱’이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요소로 쓰인 것으로, 예를 들어 ‘얼짱’은 ‘연예인은 아니지만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을, ‘몸짱’은 ‘운동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몸매가 잘 다져진 사람’을 의미¹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명사로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¹²⁾ 마지막으로, (16ㄷ)에서는 ‘짱’이 ‘최고, 가장, 매우’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됨으로써 ‘명사>부사’로의 문법화가 진행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명사>부사’로의 문법화 현상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는 최근 통신언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진심’이나 ‘대박’을

11) 출처: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 ‘대한민국의 인터넷 신조어’.

12) 김기란·최기호(2009)는 1990년대부터 약 20년 동안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단어 300개를 키워드로 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특성을 기술한 책인데, 이 책의 부록에서 ‘~짱’의 사례로 ‘강짱’(‘강도 얼짱’의 줄임말), ‘노래짱, 뇌짱, 디카짱, 말짱, 먹짱, 속짱, 울짱, 작업짱, 폰카짱, 폰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할 수 있다.

(17) ㄱ. 마음을 비워야 **진심**이라는 공간이 생긴다.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ㄴ. 열심히 하셔서 **대박** 터뜨리세요.

나가사키 짬뽕이 **대박나면서** 가려진 비운의 라면 간짬뽕.

(18) ㄱ. **진심** 애 때문에 학교가 싫네웁ㅋㅋ.

진심 진심 미친 듯이 싫고 다른 좋아하는 애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

ㄴ. **대박** 웃긴 사진을 완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직구카페에서 **대박** 저렴하게 구입~!! ^^

위의 예들 가운데 (17)은 ‘진심’이나 ‘대박’이 원래의 문법 범주에 속하는 명사로 쓰인 예이고, (18)은 명사가 아닌 부사로 쓰임으로써 문법화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와 같이 ‘명사 → 부사’의 문법화를 보여주는 예들은 단순히 문법 범주의 전환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전환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진심’과 ‘대박’이 원래의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정말(로)’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에서 제시한 ‘문법 형태의 기능 바꾸어 쓰기’ 현상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접사의 기능 바꾸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초-, 왕-, -님’ 등의 기능 바꾸기이다. 우선 그 용례를 몇 가지 제시하기로 한다.

(19) ㄱ. **초** 강추 (대구/실업/여/홈피)

초 감동 (대구/실업/여/대화)

ㄴ. **초** 잘생긴 사람의 친구 홈피라니? (서울/특목/남/홈피)

초 짜증난다. _ _+(대구/실업/남/문자)

- (20) ㄱ. **왕** 변녀 / **ㅁ** 변녀(대구/실업/여/흡피)
 ○ ㄴ 오늘 **왕**ㅈ ㅈ수다(대구/실업/여/흡피)
 ㄴ. **왕**오랜만*ㅁ*언제노원가면연락하도록하지ㄱ
 /**왕**기분좋았다(서울/실업/여/흡피)
 (21) ㄱ. **님**하.. 개념 탐재하삼 (서울/인문/남/흡피)
 ㄴ. **님**아줄드셈 (서울/인문/여/흡피)

위의 예 가운데 (19)의 ‘초-’는 원래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어떤 범위를 넘어선’ 또는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데 이러한 ‘초-’의 문법적 기능이 관형사나 ‘매우’의 뜻을 지닌 부사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9ㄱ)에서는 ‘초-’가 접두사¹³⁾가 아니라 명사 ‘강추’나 ‘감동’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기능하고 있으며, (19ㄴ)에서는 ‘초-’가 부사로 쓰이어 ‘매우’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에서는 ‘매우 큰’ 또는 ‘매우 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왕-’이 접두사가 아닌 관형사나 부사로 그 기능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ㄱ)에서는 ‘왕’이 명사 ‘변녀’나 ‘명사+이다’의 구성에 해당하는 ‘재수다’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기능하고 있으며, (20ㄴ)에서는 ‘매우’나 ‘아주’ 정도의 의미를 지닌 부사로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21)의 ‘님’은 높임의 의미를 지닌 접미사 ‘-님’이 접미사가 아닌 2인칭 대명사로 그 기능이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 예인데, 이러한 변화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정복(2000)에서 분석한 바 있는 통신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의 용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정복(2000)에 따르면, 통신어가 아닌 일상어에서 ‘님’은 접미사와 의존

13)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초-’는 원래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어떤 범위를 넘어선’ 또는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명사로 쓰이는데, 이러한 ‘님’의 용법은 다음과 같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통해 확인된다.

(22) 접미사로서의 ‘님’

- ㄱ.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ㄴ.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ㄷ. ((옛 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의 이름 뒤에 붙어)) 그 대상을 높이고 존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3) 의존명사로서의 ‘님’

-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님’은 일상어에서 대상에 대한 높임의 뜻을 지닌 접미사로 쓰이거나, 의존명사에 속하는 호칭어로 쓰이되, ‘씨’보다는 높임의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통신언어로서의 ‘님’은 (22), (23)에서와 같은 일상어에서의 용법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쓰이는 한편, 자립성을 지닌 2인칭 대명사 호칭으로도 쓰인다는 것이다. 다음이 그 예이다.¹⁴⁾

- (24) ㄱ. **관찰자님**께서는 저보고 왜 한겨레 비판 안하느냐와 지적 허영 얘기하시는데 **님**이 비판하시는 자유만 큼이나 저의 침묵의 자유와 재비판의 자유도 존중되어야겠죠.
- ㄴ. **님**.....사랑의 상처를 알아버린 당신/전 항상 **님**의 곁에서 **님**을 위로해 주고 또 다른 사랑을 안내해 주고

14) 여기에 제시하는 예들은 모두 이정복(2000)에서 가져온 것임.

위의 예들 가운데 (24ㄱ)의 ‘님’은 관형질의 주어로서 앞에서 언급한 ‘관찰자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으며, (24ㄴ)에서는 ‘당신’ 대신 쓰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신언어에서 ‘님’은 접미사나 의존명사와 같은 의존 형식에서 자립 형식에 해당하는 대명사로 그 기능이 바뀐 역문법화의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확인한 접사 ‘초-, 왕-, -님’ 등의 문법적 기능 바꾸기 현상은(12)에서 제시한 대로 자립성이 없는 소범주에 속하는 접사가 중간범주에 속하는 관형사나 부사, 또는 대명사로 전환되는 현상으로, 문법화와는 그 방향이 다른 역문법화 현상에 속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국어 접사들이 일정한 어휘적 의미를 지니는 어근이나 어기의 문법화에 의해 형성된 것들이 많다는 사실과 대조적으로,¹⁵⁾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접사의 문법적 기능 바꾸기는 역문법화에 해당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국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접두사 ‘개-’의 역문법화 양상은 어떠할까? 4장에서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4. 접두사 ‘개-’의 역문법화

3장에서는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71~80)에서 제시한 접두사 ‘초-’, ‘왕-’과 접미사 ‘-님’의 문법적 기능 바꾸기 현상을 역문법화의 관점에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최근 들어 접두사 ‘개-’ 또한 그와 같은 역문법화의 대열에 합류하여 청소년들의 통신언어에서는 물론 일상어에까

15) 허웅(1975)에서 제시하고 있는 15세기 국어의 파생법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접두사나 접미사는 본래 일정한 어휘적 의미를 지니는 어기 또는 어근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분석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지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문법화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문자언어에서 접두사 ‘개-’가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최근의 연구로는 전은진 외(2011)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와 온라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자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비속어 사용 실태에서 ‘개-’가 ‘씨발’, ‘존나’에 이어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단어¹⁶⁾에 속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일단 이 연구에서 확인된 ‘개-’의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개멍이새끼, 개무시, 개바보, 개병신, 개병신새끼, 개보지, 개불알, 개뽀록, 개빠리, 개소리, 개시크, 개싸이크, 개쌍또라이, 개쌍욕, 개씨발, 개씨발년, 개씨발놈, 개쌌새끼들, 개에바, 개오바, 개이름, 개일진, 개정색, 개죽발새끼, 개좃슈과, 개지랄, 개짓, 개찌증나는년, 개찌질짱새, 개전찌, 개초딩, 개폭소, 개품, 개호구잡년

(26) 개고맙다, 개귀엽다, 개귀찮다, 개길다, 개까맣다, 개잡치다, 개꽃히다, 개나대다, 개더럽다, 개따라하다, 개떠겁다, 개많다, 개맛없다, 개맛있다, 개망하다, 개맞다, 개멋있다, 개못던지다, 개못생기다, 개못하다, 개무섭다, 개미치다, 개발리다, 개배고프다, 개부럽다, 개불쌍하다, 개비싸다, 개빡가다, 개빡돌다, 개빡치다, 개뻔뻔하다, 개사기치다, 개사랑하다, 개상하다, 개생기다, 개슬프다, 개시끄럽다, 개시켜대다, 개시크하다, 개실망하다, 개싫다, 개씩었다, 개썰다, 개썰다, 개쏘쿨하다, 개아프다, 개약하다, 개어이없다, 개어지럽다, 개열심히하다, 개예쁘다, 개욕하다, 개웃기다, 개이쁘다, 개잘놀다, 개잘생기다, 개잘치다, 개잘하다, 개잡다, 개조용하다, 개존만하다, 개좋다, 개중요하다, 개짜

16) 전은진 외(2011:379)에 제시하고 있는 고빈도 비속어 목록 및 사용 빈도에서 ‘개-’의 빈도는 327로, 1위의 ‘씨발’(778), 2위의 ‘존나’(664)에 이어 세 번째로 사용 빈도가 높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중나다, 개쩔다, 개조이다, 개착하다, 개쳐맞다, 개크다, 개털리다, 개
하얏다, 개힘하다, 개힘들다

(27) 개존나, 개진짜

위의 예들 가운데 (25)는 체언류, (26)은 용언류, (27)은 수식언류의 예이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청소년 언어에서는 ‘개-’가 매우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다. 문제는 전은진 외(2011:380~381)에서는 ‘개-’의 용법을 싫은 사람의 외모나 행동을 나타내는 등 부정적인 표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좋다’, ‘개예쁘다’처럼 긍정적인 표현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개-’의 문법 범주를 모두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개-’는 접두사로서의 기능 외에도 부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 의미 또한 상당히 다양하게 확대 또는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접두사로서의 ‘개-’는 원래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성 및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

- (28) ㄱ.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흠
사하지만 다른’ 뜻을 더하는 접두사. 例. 개꿀, 개떡, 개떡, 개
살구 등.
- ㄴ.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헛된’, ‘쓸데없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例. 개꿈, 개떡, 개수작, 개죽음 등.
- ㄷ. ((부정적 뜻을 가지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정도가 심한’ 뜻을
더하는 접두사. 例. 개고생, 개꿀, 개망신, 개망나니, 개잡놈 등.

이러한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개-’는 명사를 어기로 하여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더하여 주는 접두사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가 원래 명사를 어기로 하여 일정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문법적 기능을 지니고 있

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5)~(27)에서 제시한 예들 가운데 (25)는 명사류에 속하는 것이며, 그 의미 자질은 (28ㄷ)의 ‘정도가 심한’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찰 대상인 역문법화의 예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25)의 예들은 대부분 기존의 국어사전 목록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어들로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도가 심한’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파생어들을 매우 생산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6), (27)의 다양한 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접두사 ‘개-’의 역문법화의 양상은 어떠할까? 우선 (26)의 예들에서 ‘개-’는 명사류가 아닌 용언류, 곧 동사나 형용사 앞에 분포하며, 그 기능 또한 ‘접두사>부사’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역문법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예들에서는 ‘개’가 모두 용언류에 접두사처럼 결합하고 있는 것처럼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 예들에서 보듯이, ‘개’는 파생어를 구성하는 데 기능하는 접두사로 인식되기보다는 하나의 자립 형식으로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 ㄱ. 나이 한 살 많다고 개 갑치다 맞은 형이 있었지.

<네이버 카페>

개 나대다 ㅋ 집행유예기간에 또 걸리면 가중처벌이다.

<Daum 게시판>

토익 열심히 했는데 개 망했다. <해커스 토익 게시판>

정말 개 실망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ㄴ. 개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염없이 고맙다.<네이버 카페>

그 아이 표정도 개 썩었다 <네이버 블로그>

아.. 여자 손님 개 시크하네 — — ㅋ <디자이너사이드>

수능 얼마 안 남아서 개 우울하다.. ㅋ ㅋ <네이버 카페>

위의 예들 가운데 (29ㄱ)은 ‘개’가 ‘깎치다¹⁷⁾, 나대다, 망하다, 실망하다’와 같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예이고, (29ㄴ)은 ‘개’가 ‘고맙다, 사랑스럽다, 시크하다, 우울하다’ 등과 같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예이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볼 때, (29)의 예들에서 나타나는 ‘개’는 접두사가 아닌 ‘부사’로 쓰이고 있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6)의 예들에서 나타나는 ‘개’가 접두사가 아닌 부사로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개’의 의미가 접두사 ‘개-’가 지니는 원래의 의미에서 확대되어 ‘매우’나 ‘너무’ 또는 ‘정말’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정도 부사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역문법화를 수행한 접두사 ‘초-’와 ‘왕-’ 역시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매우’나 ‘아주’와 같은 정도 부사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접두사의 역문법화 현상에서는 의미상으로 일정한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것은 세 가지 형태 모두 그 의미가 ‘매우’나 ‘너무’ 또는 ‘정말’과 같은 정도 부사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신언어에서 쓰이고 있는 ‘개’는 유기음화한 형태인 ‘캐’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음의 음운론적 강도를 높임으로써 표현적 효과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다음이 그 예이다.

(30) ㄱ. 말도 안되는거 이루어 주세요^^ 남자들 **캐 감동**합니다.

<네이버 지식iN>

ㄴ. 저도 Invalid Address 문제로 **캐 고생해서** 님이 아니더라도 저랑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답변 올립니다.

<네이버 지식iN>

17)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자꾸 까불거나 잘난 체하다’는 뜻의 ‘깎죽대다’ 혹은 ‘깎죽거리다’의 방언형.

ㄷ. 청옥 노리개 쌍 끼면 혼자 북방노가다 **개 째개** 땀.

<네이버 지식iN>

여기에서 보듯이, ‘개’가 ‘감동하다, 고생하다, 찢다’ 등 같은 어휘들 앞에서 ‘개’와 유사한 의미의 부사로 쓰이는 예들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개’의 변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통신언어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접두사 ‘개-’가 ‘존나’나 ‘진짜’와 같은 부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27)의 ‘개존나’나 ‘개진짜’ 또한 (26)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역문법화에 의해 접두사가 아닌 부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용례이다.

(31) ㄱ. 개 씨발 좇같은 인터넷 **개 존나** 빠치네 <네이버 블로그>

소리 완전 **개 존나** 시끄러운 알람시계 얼마쯤 하나?

<네이버 블로그>

ㄴ. **개 진짜** 야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팀을 짜진 않더라.

<네이버 카페>

개 진짜 귀엽다 ㅋㅋ <네이버 블로그>

위의 예 가운데 (31ㄱ)은 ‘개존나’의 용례를 (31ㄴ)은 ‘개진짜’의 용례를 각각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통신언어에서 ‘개’가 (29)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자립성을 지니는 부사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의미는 ‘정말’이나 ‘매우’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6), (27)의 예에서 나타난 ‘개’는 접두사 ‘개-’가 ‘초-’나 ‘왕-’ 같은 접두사들과 마찬가지로 역문법화에 의해 정도 부사로 쓰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대로 통신언어에서이긴 하지만 역문법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초-’와 ‘왕-’, ‘개-’가 갖는 공통적 특성은 무엇일까? 이들은

모두 상당히 생산적인 성격을 지니는 접두사로서 단순히 문법 범주를 바꾸는 기능보다는 각기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로서, 접두사로서의 의미가 확대 또는 변화되어 일정한 어휘적 의미를 지니는 내용어로 상승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¹⁸⁾

5. 마무리

본 연구에서는 종래에 단순한 품사 전환 현상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던 통신언어의 문법적 기능 바꾸기 현상 가운데는 보편적 언어 변화의 성격을 띠는 문법화나 그와 반대되는 역문법화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최근 청소년들의 언어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접두사 ‘개-’의 역문법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화란 어휘적 의미를 지니던 요소가 문법적 의미를 지니던 요소로, 문법적 의미가 덜한 것이 문법적 의미가 좀 더 강한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인 반면, 역문법화란 문법화와는 반대로 문법적 의미를 지니던 요소가 어휘적 의미를 지니던 요소로, 문법적 의미가 강한 것이 문법적 의미가 좀 더 약한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둘째, 문법화는 ‘주범주(명사, 동사) > 중간 범주(형용사, 부사) > 소범주(전치사, 접사, 접속사, 관사, 조동사) > 접어 > 굴절 접사’와 같은 경로

18) 영어에서 나타나는 역문법화 현상을 다룬 김혜리(1998:160)에서도 ‘-ism, -ist, -ology, anti-’ 등 파생접사에서 역문법화를 경험한 형태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단순히 문법 범주를 바꾸는 기능 외에 고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최윤지(2008:325)에서도 접미사에서 자립명사로 발달하고 있는 ‘꾼류’ 한자어들이 모두 특수화된 의미를 가지고 어기와 결합하여 매우 생산적인 단어를 만들어내는 부류에 속한다고 보았다.

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역문법화는 그 반대의 경로를 밟아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통신언어 가운데 ‘완전, 대략, 장(長, 쟁), 진심, 대박’ 등은 원래의 문법 범주인 명사에서 부사로 바뀌는 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초-, 왕-, -님’ 등은 접사가 관형사나 부사, 또는 대명사로 전환되는 역문법화를 보이고 있다.

넷째, 접두사 ‘개-’ 또한 ‘초-’나 ‘왕-’ 같은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부사로 쓰이고 있어, 역문법화가 진행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기능 바꾸기 현상을 문법화 또는 역문법화라는 언어 변화의 원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변화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최고, 가장, 매우, 아주, 정말’ 등의 뜻을 지니는 정도부사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기능 바꾸기가 아무런 방향성이 없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란·최기호, 『대중문화사전』, 서울: 현실문화, 2009.
 김유범, 「형용사 ‘지다’의 형성과 역문법화」, 『우리말연구』18, 우리말학회, 2006, pp.123~141.
 남수경, 「품사통용의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33, 개신어문학회, 2011, pp. 105~127.

- 백낙천, 「국어의 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화』3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pp.241~257.
- 안주호,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서울:한국문화사, 1997.
- 안주호, 「한국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 『담화와 인지』8-2, 2001, pp.93~112.
- 안주호, 「한국어에서의 역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언어학』10, 대한언어학회, 2002, pp.23~40.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한국문화사, 1998.
- 이정복·양명희·박호관, 『인터넷 통신언어와 청소년 언어문화』, 2006, 한국문화사.
- 이정복, 「통신 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2』, 한국사회언어학회, 2000, pp.193-221.
- 이정복, 『인터넷 통신언어의 확산과 한국어 연구의 확대』, 서울:소통, 2009.
- 전은진 외 5인, 「문자언어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실태 연구」,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학회, 2011, pp.371~406.
- 최윤지, 「자립명사로 발달하는 한자어 파생접미사에 대하여」, 『형태론』 10-2, 도서출판 박이정, 2008, pp.319~333.
- 허웅,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1975.
- Bybee, Joan L., William Pagliuca, & Revere D. Perkins, Back to the future. in Traugott & Heine 1991a.vol.12, 1991, pp.17~58.
- Heine B. Ulrike C. & Friederike, H.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pper, P. J. & Traugott, E. C.,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Kuryłowicz, J.(196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Coseriu(1975), *Esquisses Linguistiques* II, Munich:Fink, 1965, pp. 38~54.
- Leech, G. *Semantics*, Harmondsworth, 1981.
- Mastumoto, Yo, From bound grammatical markers to free discourse markers: history of some Japanese connectives. BLS 14, 1988, pp. 340~351.

Abstract

A Study on Grammaticalization in the Internet Language
- Centering on Usage of 'gae-' as a prefix -

Gang, Hui-suk

This study aims to examine degrammaticalization of 'gae-' which has been actively realized in the internet language in terms that it includes types which need to be described through a phenomenon of grammaticalization or degrammaticalization rather than just a transformation of parts of speech.

Degrammaticalization has been often discovered in our Korean offline language as well as it exists in a few languages including English although it is opposite to grammaticalization which is commonly discovered in many languages.

Therefore, the study categorized changes in grammatical functions into grammaticalization and degrammaticalization to speculate their types and characteristics and then analysed degrammaticalization of 'gae-', a prefix.

key words : internet language, changes in grammatical functions, 'gae-', a prefix, grammaticalization, degrammaticalization.

강희숙

소속: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501-759)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전화번호: (062-230-7316) (010-9881-7316)

전자우편: hskang@chosun.ac.kr

이 논문은 2012년 7월 17일 투고되어
2012년 8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됨.

